

장애인 연구 동향 분석: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학술지를 중심으로

박 정 은[†]

조선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논의되고 이해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추후 연구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학회지 6개(상담학연구, 상담 및 심리치료, 인간이해, 초등상담연구, 청소년상담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에 출판된 38편의 논문을 연구의 기초사항, 연구 주제, 연구 대상자, 방법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관련 논문은 연도별로 대략 1~2편이 발간되었다. 둘째, 분석 대상인 6개 학회지 중 5개의 장애인 관련 논문 편수가 해당 학회지에서 출판된 전체 논문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이 있는 비장애 가족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적은 편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추후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의 장애인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장애인, 연구동향, 장애인 상담

[†] 교신저자 : 박정은, 조선대학교 윈스톱학생상담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번지 국제관 3층
Tel: 062-230-7660, E-mail: adroitinsc@gmail.com

장애인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낯설게 느끼는 집단 중 하나로,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은 자신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 아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김진영, 남진열, 2005). 자신과 장애인 사이에 명백한 경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다수 비장애인의 인식과는 달리, 모든 장애인의 삶의 모습이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경도의 청각 장애가 있지만 보청기 등의 보조 장치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청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치료나 재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적 기능의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 약물 복용 등으로 일상생활을 어려움 없이 해나갈 수 있다.

비장애인은 장애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타인의 경험이라고 여기지만(류승연, 2018), 장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야. 우리 모두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예비 장애인”(류승연, 2018, p. 128)”이라는 말이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비장애인을 “the temporarily body-abled(일시적으로 장애가 없는 몸을 가진 사람)”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의 80% 이상이 후천적으로 발생한 장애인데, 예기치 못한 순간의 사고나 신체적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중증 질환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 누군가에게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장애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별이나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에게도 비장

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해,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8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유동철, 2011). 2008년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인권 신장 및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실제로 2017년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자신이 차별을 받았다고 보고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2014년 실태조사보다 감소하였다(오옥찬, 2018). 그러나 장애인 실태조사 응답자의 70% 이상이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수치는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 단위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이나 차별은 크게 줄었다 하더라도 사회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및 분위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취업 장면에서의 어려움이나 장애인의 경제적 지위를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40% 미만이며, 그중 정규직은 35%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에 따르면 장애인 중 15%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반수급 가정에 해당하며, 장애인 중 60%가 자신의 경제 상태가 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의 의미나 부정적인 인식을 담지 않는 방향으로 ‘장애자’, ‘장애우’ 등의 단어를 거쳐, 현재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특정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관점이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장애를 지칭하는 일부 용어를 개정하는 노력(조현병, 지적장애인 등) 등을 해 오기도 했다(안성희, 2020). 이와 같은 변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는 용어 역시 장애인에 대한 앞서 언급한 우리 사회의 단편적인 이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정체성 중심 언어(identity first language)로 장애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정체성 중심 언어의 사용은 한 개인의 정체성을 장애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북미권 및 유럽에서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람 중심 언어’를 사용한다. 미국에서는 1992년부터 장애인을 지칭할 때 ‘a person with disability(직역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단어는 장애가 개인이 가진 여러 특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Snow, 2007). 캐나다 정부 역시 ‘people with disability’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장하면서 장애는 특정 활동을 하기 어렵게(혹은 못 하게) 하는 요인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13). 사람 중심 언어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요인(인지능력, 경제 상황, 가족의 지지 등)에 따라

개인의 삶의 모습이나 장애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다는 개별성에 대한 강조 역시 포함되어 있다(Dunn & Andrews, 2015).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심리학회 학술 출판물(논문, 저서 등)에 어떤 집단이나 대상을 일컬을 때 최대의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연구일 경우,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장애인 전체에 적용하거나 일반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 등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는 장애인을 치료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의료적 접근에서 벗어나 장애를 개인이 지닌 하나의 특성으로 바라보는 다양성 모델(Diversity Model)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Altman, 2001). 다양성 모델에서는 장애가 인종이나 성적 지향처럼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경험을 구성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성소수자의 경우 그 안에서 다양한 하위 집단이 존재하고 하위집단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성소수자가 경험하지 않는 고유한 경험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형성한다.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 비장애인이라면 하지 않는 고유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며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Artman & Daniels, 2010).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 역시 외국인 유학생이나 결혼이주여성처럼 주류와는 다른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지닌 소수 집단 중 하나인 것이다. 이는 장애를 하나의 고유한 문화로 바라보는 시각은 최근 상담심리학 분야 내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문화 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 기조와도 연결되어 있다(Foley-Nicpon & Lee, 2012).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다문화상담은 인종,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 내담자 개인이 지닌 고유하고 다양한 정체성이 상담 장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심 개념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역시 상담자가 만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소수자 중 하나로 이해되므로 상담자가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내담자가 장애로 인해 어떤 영향을 이해받는지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Dunn & Andrews, 2015). 다만, 미국에서도 장애인 상담은 재활상담(Rehabilitation Counseling)의 고유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에(Foley-Nicpon & Lee, 2012), 미국 내의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상담심리학 분야 내에서 장애인상담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다문화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재활상담자뿐 아니라 모든 상담자가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mart & Smart, 2006).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미국심리학회에서는 2012년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위한 평가와 개입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Assessment of and Interventions With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장애인 인구 규모는 전체인구의 약 5%로, 미국보다는 적은 비율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로는 적지 않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장애인 상담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재활상담(Rehabilitation Counseling) 영역에서만 이루어졌고,

상담심리 분야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은진, 2020). 그러나 재활상담만으로 장애인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재활상담의 목적은 장애나 재해 등으로 중증도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적응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Robertson & Brown, 1992), 국내 재활상담은 직업 및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활상담과는 별개로 장애인은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 내적인 어려움이나 심리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상담 서비스 역시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류 구성원이 아닌 소수자로서 경험하는 차별 및 배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 등을 경험할 때 장애인의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는 커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 삶의 다양한 장면(대인관계, 연애, 결혼, 취업 등)에서 경험하는 것은 장애로 인해 유발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경험하는 공통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다(안성희, 2020; 이은진, 2020). 실제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요 호소 문제와 상담 활동에 대한 태도를 탐색한 성경희와 최성열(2020)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상담에서 다루고 싶은 주요 호소문제는 성격 문제, 부부 문제, 자녀교육 및 양육 문제 등으로 장애와는 무관한 주제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삶의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상담 서비스의 종류나 상담자의 전문성도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모나 행동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험은 다를 수 있고, 또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경험 및 어려움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최근 상담심리학 분야 내에서 장애인 내담자와의 상담에 대한 관심 및 준비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안성희, 2020; 이은진, 2020), 이와 같은 관점이 대두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Foley-Nicpon & Lee, 2012).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서야 다문화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장애인 상담에 대한 상담심리학 분야의 준비도 및 역량은 아직 구체적으로 탐색된 바조차 없을 만큼 미비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심리학 분야 내에서 장애인 내담자에 대한 준비도의 수준을 학술적인 정보의 양 및 다양성 수준 그리고 학문적 깊이를 분석함으로써 확인하고자 한다. 유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도 장애(인)와 관련된 연구물을 분석하고 추후 연구 방향성 및 과제를 논의하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김경미와 김미옥(2006)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고 주 전공이 사회복지학인 학술지 9개에 실린 장애관련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학이 장애인 복지 정책 및 관점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국가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된 15종의 장애 중 정신장애를 제외한 14종의 장애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동향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이론적 경향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복지학 분야의 학술지에서 장애와 관련된 연구는 전체의 약 7%

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의 주제 면에서도 장애 일반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로 세부 장애 영역별 특성이 반영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김경미와 김미옥(2006)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연구 활성화와 장애를 둘러싼 다차원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국내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장애(인)를 주제로 한 개관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종합연구(김진숙, 2015)가 유일하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경험을 심도있게 이해하려는 목적을 두고 수행된 연구로 본 연구의 목적과는 다른 점이 있다. 오히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상담심리학 분야의 장애(인) 관련 논문의 개관 연구를 예시로 들 수 있다(Foley-Nicpon & Lee, 2012; Woo, Goo, & Lee, 2016).

Foley-Nicpon과 Lee(2012)는 미국의 주요 상담심리학 학술지 5개(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에 실린 장애 및 장애인과 관련된 논문 55편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의 연구자들은 상담심리학 관련 학술지 내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가 주제, 방법론, 논의되는 방식 등에서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관 연구보다는 경험적 연구(empirical)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특정 장애보다는 장애가 있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

나 양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적다는 점과 장애를 다양성의 하나로 개념화하면서도 다른 정체성(인종, 성별, 사회계층) 등과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탐색한 연구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수행된 Woo 등(2016)의 연구는 미국 상담학회에 속한 학회지로 범위를 한정하여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출판된 장애 관련 연구를 개관하였다. Woo 등(2016)은 다문화 상담역량 및 다문화적 관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담 분야에서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인과는 달리 다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10년간의 연구 동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oley와 Lee(201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Woo 등(2016)도 장애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Woo 등(2016)은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가 유럽계 미국인(백인)임을 지적하면서 소수민족의 목소리가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처럼 국내 상담심리학 분야의 장애인과 관련한 연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상담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장애(인)를 접근하는 방식을 점검하고 추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상담심리학 분야 학술지로 한정하여 장애인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장애인 관련 연구는 재활 상담이나 특수 교육 등 장애인이 주요 연구 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상담심리학 분야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술적 관심 및 논의의 다양성 수준을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방 법

연구 대상 선정 기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미국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주요 학회지에 실린 장애인 관련 연구를 개관한 선행연구(Foley-Nicpon & Lee, 2012) 및 장애인 관련 주제로 진행된 국내 개관 연구를 검토하였다(김동일 외, 2009; 박재국, 이미숙, 2001; 정명선, 이경준, 2012). Foley-Nicpon과 Lee의 연구(2012)에서는 2004년에 제정된 미국 장애인 교육 개선법에 규정된 장애를 기준으로 해당 장애와 관련된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김동일 외(2009)는 국내 학습장애 연구의 흐름을 분석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학습장애의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읽기장애, 수학적장애 등을 주제어로 사용하여 검색된 문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15가지 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개관 연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학회지에서 학술지가 발간되기 시작한 197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표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의견이나 논평, 보고서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 선정 과정

본 연구에서 포함할 문헌의 범위를 확정 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한국학술정보서비스시스템(kiss.kstudy.com),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 등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학술지명 및 발간기관명에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포함된 학술지를 검색하였다. 총 65개의 학술지가 검색되었고 그 중 데이터베이스별로 중복된 학술지 17개를 제외하고, KCI에 등재되지 않은 학회지(미등록 및 등재후보 포함) 39개를 제외하였다.

일차적으로 선택된 9개의 학술지 중, 특정 종교에 기반한 학회지 3개, 사회복지 분야의 학회지 1개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학회지명에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제외된 학회지가 없는지를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인간이해'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학회지는 총 6개로, 상담학연구, 인간이해, 청소년상담연구, 초등상담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이다.

둘째, 각 학회지에서 발간한 논문 전편이 실려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15가지 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장애*'를 주요어로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192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셋째, 본 연구자는 검색된 192편의 초록 및 세부 내용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준에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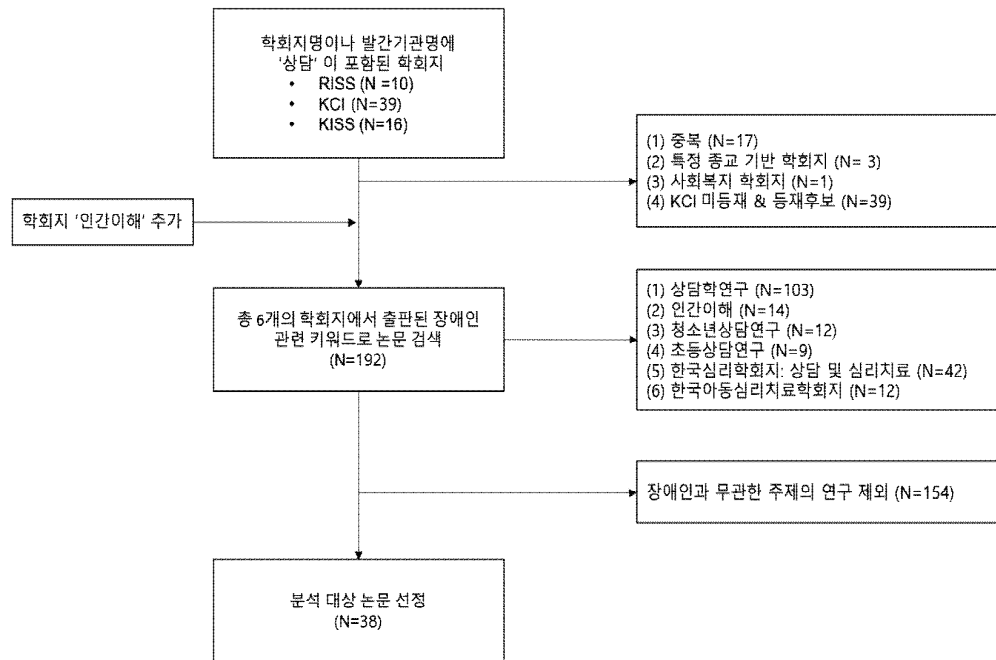


그림 1. 문헌선택과정

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학술지에 개관연구를 출판한 경험을 갖고 있는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생 1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법령에 의해 지정된 장애 중 하나 이상 가진 사람을 연구대상이나 연구주제로 진행된 연구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했으며,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주제(예: 주의력 결핍 장애, 성격 장애 등)를 다룬 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자와 외부평정자 두 명이 독립적으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고, 각각의 연구가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포함’, ‘검토’, ‘불포함’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자와 외부평정자는 각각 1차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서로의 분류 결과를 비교한 후 모두 ‘제외’로 표시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151편

의 연구가 제외되었다. 151편의 연구 대부분이 임상적 의미의 장애(예: 불안장애)나 ‘장애 요인’ 등 ‘장애’라는 단어는 포함되었지만, 장애인이나 본 연구에서 포함기준으로 두고 있는 장애와는 관련이 없는 연구였다.

남은 41편의 연구 중 1차 분류 결과가 연구자와 외부평정자의 의견이 불일치한 연구가 4편이었고, 4편 모두 제목이나 초록으로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이나 장애의 종류를 쉽게 특정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자와 외부 평정자는 4편의 논문 전문을 검토한 후 2차 분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논문 38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평정 절차

본 연구자는 선정된 논문을 어떻게 분석하

표 1. 연구물 분류기준 및 세부 사항

	미국상담학회 내 학술지에서의 장애 관련 연구 동향 (Woo 등., 2016)	미국 상담심리 학술지에서의 장애 관련 연구 동향 (Foley-Nicpon & Lee, 2012)	사회복지학 학술지에서의 장애인 관련 연구 동향 (김경미, 김미옥, 2006)	본 연구
기초 사항	학회지별 연구물 수, 연구자 수	학회지별 연구물 수	연구별 연구물 수 학회지별 연구물 수	연구별 연구물 수, 학회지별 연구물 수
연구 대상	장애인 당사자(일반), 장애인 당사자 (장애 종류별), 장애인 가족, 장애인 상담을 하는 상담자	장애인 당사자(일반), 장애인 당사자 (장애 종류별)	장애인 당사자, 가족, 조직, 사회환경, 기타	장애인 당사자(일반), 장애인 당사자 (장애 종류별),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연구 방법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기타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척도개발연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

고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첫째, 특정한 학술지를 중심으로 장애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선행연구(김경미, 김미옥, 2006; Foley-Nicpon & Lee, 2012; Woo et al., 2016)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를 분류할 기준을 마련하였다(표 1 참고). 둘째, 표 1에 언급된 선행연구에서 더 범위를 확장하여 장애 관련된 주제의 연구를 개관한 선행연구(김동일 외, 2009; 박재국, 이미숙, 2001)까지 참고하여 연구 주제 분류 방식을 결정하였다. 학습장애 개관 연구를 제외하면(김동일 외, 2009),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미리 연구 주제 분류를 정하기보다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의 주제를 모

두 살펴본 이후, 공통되는 주제별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통해 연구 주제를 분류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Foley-Nicpon과 Lee의 연구나 김경미와 김미옥의 연구(2006)는 참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먼저 선정된 연구의 주제를 모두 열거하고 그 이후 공통되는 주제끼리 묶는 방식을 선택하되, 그 과정에서 기존 선행연구의 주제 분류를 일부 참고하였다(표 2 참고). 학습장애(김동일 외, 2009)나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박재국, 이미숙, 2001)의 주제분류는 해당 개념의 특성, 진단, 관련 요인, 처치 및 개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학 분야에서의 장애인에 관한 연구를 개관한 Woo 등(2016)의 연구는 장애인 당

표 2. 연구주제 분류 및 범주화

	미국상담학회 내 학술지에서의 장애 관련 연구 동향 (Woo et al., 2016)	학습장애 개관 (김동일 외, 2009)	장애인 삶의 질에 관한 개관 (박재국, 이미숙, 2001)	본 연구
분류1	진로 관련 (예: 취업, 진로 신념, 직업 만족도)	학습장애 특성	장애인의 삶의 질의 구성요소	장애인 진로 및 취업
분류2	장애 진단 및 평가	학습장애 진단 판별, 정의	장애인의 삶의 질 수준 평가	장애인 학업
분류3	장애에 대한 적응 및 수용	학습장애의 생물학적 요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및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장애인 심리특성
분류4	장애인 상담 개입 및 전략	학습장애 증재, 치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적용과 정책 개발	장애인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개입
분류5	장애인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 및 훈련	학습장애 출현율, 역학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분류6				장애 자녀나 형제를 둔 비장애인 가족의 경험

사자의 적응, 장애인 상담 기법, 상담자 훈련 등 상담 및 심리 관련 관련된 주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개관 연구의 목적이 상담심리학 내에서의 장애인 관련 연구가 무엇을 주제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연구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인 만큼, 연구자는 다음의 순서로 각 연구를 분류 및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먼저 각 논문의 초록 및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 방법을 양적, 질적, 혼합, 그리고 문헌연구(conceptual) 중 하나로 코딩하였다. 둘째, 연구주제를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의 주제를 하나씩 검토한 후에 비슷한 주제의 연구끼리 분류했다. 비슷한 주제의 연구끼리 분류한 후에는, 공통적인 특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유형들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 작업을 마친 후, 동일 범주 내에 속한 연구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는 연구들은 다시 하위 범주를 만들어 분류했다. 셋째, 각 연구의 연구 대상은 크게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5개의 장애 범주 중 하나로 코딩하고, 15개의 장애 범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구는 '장애인 일반'으로 코딩하였다. 비장애인 대상 연구는, 비장애인 일반에 관한 연구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둔 비장애인 가족에 대한 연구로 하위분류하였다.

연구자는 1차 분류한 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론 분류 범주 중 새로운 범주가 필요한지 혹은 불필요한 범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출판연도에 따른 연구 빈도와 학술지별 논문 편수를 파악하였다.

감수자

본 연구자는 상담심리학 분야에서의 장애인 관련 연구 동향을 탐색하는 과정 및 분류하는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담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받았다. 연구자는 감수자에게 연구물을 검색하는 기준과 과정, 그리고 선정된 연구물을 분석하는 과정 및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받았다. 감수자에게 받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참고한 개관 선행연구의 어떤 기준들을 참고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에 대한 타당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 주제 분류 시,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기술이 추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주제가 '심리 특성'으로 분류된 경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논문이 해당 주제로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하다. 연구자는 감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법 및 결과를 기술하였다.

결 과

기초사항

발행연도별 논문 수

장애인 관련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발행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1980년에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가 '인간이해'에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는 매해 1~2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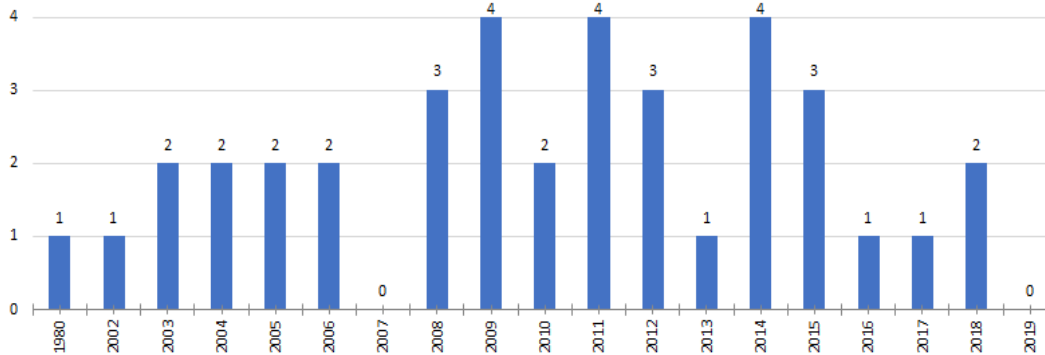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총 발행 논문 수

발행 추이를 5개년씩 살펴보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5편(13.16%),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11편(28.94%)이 발행되었으며,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4편(36.84%),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7편(18.42%)이 발행되었다.

서 출간된 총 편수 대비 포함 논문 비율은 4%로 한국아동심리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심리치료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 학회지의 장애인 관련 연구는 전체 발간된 논문의 1%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지별 발간 동향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학술지 6개의 장애인 관련 논문 발표 경향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포함된 대다수(61%)의 논문은 상담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이었으나, 학회지에

연구대상별 동향

38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각 논문의 연구대상

표 3. 학회지별 논문 편수

학회지명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 편수 (~2019)	학회지에서 출간된 총 논문 편수 (~2019)	포함된 논문 편수 / 총 논문 편수
상담학연구	23(61%)	2022	1%
인간이해	2(5%)	202	1%
청소년상담연구	0(0%)	446	0%
초등상담연구	1(2%)	218	0.5%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6(16%)	889	0.7%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6(16%)	142	4%

표 4. 연구대상자별 연구 논문 수

연구 대상	비장애인: 20편 (52.6%)		장애인: 18편 (47.4%)						
	장애인의 가족	기타	장애인 일반	자폐 장애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언어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편수	15	5	7	3	4	1	1	1	1
%	39.5	13.1	18.4	7.9	10.5	2.6	2.6	2.6	2.6

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18편, 비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20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이었다. 특정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연구는 총 11편으로, 그 중 지체장애가 4편, 자폐장애 3편, 뇌병변장애 1편, 언어 장애 1편, 청각 장애 1편, 지적 장애 1편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0편 중 15편은 장애인 가족을 둔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어머니에 관한 연구가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이었다.

연구방법별 동향

총 3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전체 38편의 논문 중 양적 연구 논문이

표 5. 연구방법별 연구 논문 수

방법론	분석방법론	편수 (비율)
양적 (23)	기술통계	1 (2.6%)
	요인분석	2 (5.3%)
	다변인간 관계분석	8 (21.1%)
	집단 평균차이 분석 (예: t검정, 일원분산분석)	12 (31.6%)
질적 (12)	현상학	4 (10.5%)
	합의적 질적 연구	1 (2.6%)
	근거이론	2 (5.3%)
	사례연구	4 (10.5%)
	메타연구	1 (2.6%)
문헌연구 (3)		3 (7.9%)

23편(60.5%)으로 가장 많았고, 질적 연구는 12편(31.6%)이었다. 문헌연구는 3편(7.9%)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두 개 이상의 연구 방법론을 사용한 혼합 연구는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문헌연구는 특정한 주제 및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연구로, 분석 대상 논문 중에서는 상담자가 청각장애를 가진 내담자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 및 관점을 제시한 배진희(2003)의 연구와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상담자의 준비단계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한 송현중(2005)의 연구 등이 있었다.

연구주제별 발간 동향

분석 대상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를 가진 자녀나 형제를 둔 비장애인 가족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가 16편(42.11%)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개입에 관한 연구가 10편(26.3%), 장애인 학업 4편(10.5%), 그리고 장애인 심리 특성 3편(7.9%), 장애인 진로와 취업 3편(7.9%),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연구 2편(5.3%)이 뒤를 이었다.

연구주제별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많이 진행된 연구는 장애를 가진 자녀나 형제를 둔 비장애인 가족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로 총 16편이다. 그중에서도, 장애 자녀의 어머니가 자녀의 장애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 및 스트레스(김미라, 정남운, 2015; 김윤희, 김진숙, 2014; 박춘희,

이지연, 2011; 이숙자, 오수성, 2006; 임성욱, 이숙자, 2008)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긍정적 의미부여를 하고, 심리적 적응을 할 수 있는지(김미례, 오명자, 오익수, 허승준, 2008; 장은희, 정영숙, 2011; 조성은, 홍경자, 이명자, 2004)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한편,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선행연구 10편 중 4편(김영란, 2009; 김윤희, 김진숙, 2014; 김진숙, 2015; 이숙자, 오수성, 2006)은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 그 외에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지연되어 일상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포괄하여 일컫는다(발달장애인법, 2015).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어머니가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점차 자신이 장애 자녀의 어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수용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의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인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김윤희, 김진숙, 2014; 김진숙, 2015).

나머지 6편 중 3편의 연구는 장애의 종류와 관계없이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장애 자녀의 어머니가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돌봄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거나(장은희, 정영숙,

표 6. 연구주제별 논문 (괄호 안은 논문 편수)

연구주제	세부주제	논문 제목	1저자(년도)
장애인 학업 (4)	장애 학생 통합교육 (2)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상담교사의 준비와 역할수행 실태 분석	송현중(2008)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상담자의 준비-경도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송현중(2005)
	장애인 대학생활 (2)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이은진(2011)
	대학상담 :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최지영(2009)	
장애인 진로와 취업 (3)	취업 (2)	장애 대학생용 취업준비도검사 타당화 연구	김동일(2012)
		장애 대학생의 취업준비도 특성: 비장애 대학생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동일(2011)
	진로 (1)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유훈(2015)
장애인 심리 특성 (3)		청각장애 내담자들 간의 다양성: 정체성을 중심으로	배진희(2003)
		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임성욱(2008)
		신체장애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비장애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와 부모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수인(2014)
자폐 장애 아동의 소통능력 향상 (3)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동물보조 놀이치료 사례 연구	김양순(2005)
		만화캐릭터를 활용한 상황이야기 중재패키지가 지적 및 자폐성 장애학생의 자기관리기술에 미치는 효과	김영준(2014)
		자폐장애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자기표현을 위한 비지시적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심은지(2009)
장애인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개입 (10)	자존감 향상 (3)	역동적 집단상담이 지체장애인의 자존감과 지각된 상담효과 요인에 미치는 영향: 비장애인과 비교	박윤자(2003)
		부부관계증진 상담 프로그램이 지체장애인 부부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	원요한(2004)
	기타 (4)	영상매체를 활용한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이 뇌변장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이정민(2017)
		언어장애아의 진단과 치료방안을 위한 일모형	강문희(1980)
		자폐성 아동 학습 프로그램 LPDAC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지능 특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여문환(2010)
	발달장애아를 위한 표현예술과 놀이중심의 통합적인 심리치료 사례 연구	이정숙(2010)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의 효과에 지속성에 관한 연구	조현재(2002)	

표 6. 연구주제별 논문 (괄호 안은 논문 편수) (계속)

연구주제	세부주제	논문 제목	1저자(년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2)		장애인 이해 수업을 통한 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고찰	박미란(2009)	
		특수아 상담교과 수업을 통한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이주영(2018)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수용 및 적응 과정 (10)		장애아동 어머니가 자녀의 초등학교 통합직전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김미라(2006)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ctive Parenting Today: APT)이 장애아 어머니의 자기격려와 자기낙담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김미례(2008)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발달장애아 가정의 어머니 공감능력 증진과 비장애자녀의 행동문제개선 효과	김영란(2009)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장애수용 과정	김윤희(2014)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 메타종합연구	김진숙(2015)	
		초기부적응도식과 장애학생 어머니의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박춘희(2011)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가시화 실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정혜(2018)	
	장애 자녀나 형제를 둔 비장애인 가족의 경험 (16)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이숙자(2006)
			장애아 어머니의 긍정적 의미부여와 심리적 안녕감, 돌봄 만족과의 관계	장은희(2011)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한 심리적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	조성은(2004)
비장애인 형제 자매의 경험 및 심리적 적응 (2)		지적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심리적 현상	김다혜(2016)	
		중증장애인의 비장애 형제로 살아감에 대한 질적 연구	류수민(2015)	
기타 (4)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 조절효과 중심으로 -	강효경(2012)	
		Effects of Psychoeducation using the HeartMath™ system on stress and wellness for Korean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명화숙(2014)	
		장애학생 부모의 자아탄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박춘희(2012)	
		발달장애아동 가족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와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왕영선(2013)	

2011), 가족의 돌봄의 역할과 양상이 달라지는 시점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도 있었다(김미라, 정남운, 2006).

장애가 있는 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도 일부 있었다(김다혜, 한재희, 2016; 류수민, 한영주, 2015).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에 대한 선행연구 2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는 유년기부터 강한 책임감으로 형제를 돌보고 가족에 대한 관심이 장애형제에게 치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장애형제는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 장애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밝히거나 이해를 구하기 어려워하는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장애형제의 존재 역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개입을 주제로 한 연구는 10편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폐 장애 아동의 소통능력 향상 연구가 3편,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났다. 자폐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자폐 장애를 가진 아동의 자기표현(심은지, 이정숙, 2009), 자기관리(김영준, 도명애, 2014)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 등이 있었다. 두 연구 모두 미술치료(심은지, 이정숙, 2009)나 만화캐릭터 활용한 상황 이야기(김영준, 도명애, 2014) 등 언어가 아닌 다른 매체를 활용하였다.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연구는 3편 모두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상담이 장애인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박윤자, 김정희, 2003), 예술치료가 뇌병변장애인의

자존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정민, 김수지, 천성문, 2017),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지체장애인 부부의 자존감 및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원요한, 천성문, 윤치연, 이영순, 2004)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셋째, 초등교육, 대학생활, 진로, 취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에 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는데, 장애인 학업 및 교육에 대한 연구가 4편,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업 및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상담자의 준비도(송현중, 2005, 송현중, 2008)와 장애인의 대학생활 적응(이은진, 유성경, 2011; 최지영, 2009)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취업 및 진로준비에 관한 연구는 장애가 있는 대학생의 취업준비도(김동일, 신재현, 김원호, 이기정, 손지영, 2012; 김동일, 이기정, 김원호, 신재현, 2011) 및 진로준비행동(유훈, 김계현, 2015)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나 정신건강을 탐색한 연구는 3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정체성 및 문화(배진희, 2003), 지체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 삶의 질 간의 관계(임성욱, 이숙자, 2008), 신체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비장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정수인, 오인수, 2014)을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에 대한 연구는 2편이었는데, 2편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업이나 교육을 제공한 이후,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변화를 조사한 연구였다. 다만 박미란(2009)의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한편, 이주영과 김원호

(2018)의 연구는 상담 전공 학부생의 인식 변화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상담자 및 상담심리 분야에 제공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이루어진 장애인 연구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주제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추후 연구 과제 및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연도별 장애인 관련 논문 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한 해에 1~2편의 논문만이 발표되었고, 2011년에 4편이 발표된 것이 최다 편수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나 논의 부족(안성희, 2020)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다른 소수자 집단에 대한 연구에 비해 양적으로 적은 현상은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미국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주요 학회지 5개에 출판된 장애인 연구는 전체 출판된 논문 편수의 3% 미만에 불과했다(Foley-Nicpon & Lee, 2012; Woo et al., 2016).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대표하는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가 학문의 현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장애인의 존재는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담심리학 분야에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장애인이 하나의 사회적 혹은 문화적 집단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되는 대상으로 정의하는 의학적 모델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안성희, 2020). 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상담심리 분야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담 장면에서 만날 수 있는 내담자의 한 명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적극적으로 갖추나갈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는 장애를 개인이 지닌 하나의 조건으로 보되, 사회 다수를 구성하는 비장애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수자로 보는 다문화적 관점의 상담에 대한 연구도 다수 진행된 바 있다. 예를 들어, Middleton, Rollins와 Harley (1999)는 다문화주의와 문화의 정의를 제시하고 장애인 역시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소수자이면서 차별과 맞서 싸우는 하나의 집단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Olkin(2007)은 상담자가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모두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장애가 각각의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평가해야 하며, 내담자가 지닌 강점, 자원 등을 파악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접근법(Disability Affirmative Therapy)을 제안하기도 했다. Rivas와 Hill (2017)은 장애가 있는 내담자를 상담한 상담자의 경험을 탐색한 질적연구를 수행했는데, 대부분의 참여자가 장애를 하나의 결핍으로 보거나 의학적 모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상담자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상담자가 장애를 개인을 구성하는 하나의 문화적, 맥락적(contextual) 요소로 고려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내 상담 심리 분야에서도 ‘장애’ 자체가 아닌 ‘장애가 개인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별 분포를 보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연구보다 장애인 가족을 둔 비장애인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확연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애인 자녀나 형제의 존재가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고유의 경험을 하는 요인이 되는 것과 연관 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온전히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는 것은 여러 제한점이 따른다. 따라서, 비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자녀나 형제에게 물리적, 경제적 돌봄을 제공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 내적으로 고유의 감정이나 심리적 적응 과정도 거치게 된다.

장애를 가진 자녀나 형제를 둔 비장애인 가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 중에서는 어머니, 그리고 장애의 종류 중에서는 발달 장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장애를 가진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김진숙, 2015). 한편, 발달 장애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둔 비장애인 가족에 대한 편중된 연구 경향은 발달장애의 특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발달 장애는 외모상으로는 장애가 드러나지 않지만, 전 생애에 걸쳐 타인의 보호와 돌봄이 있어야 하는 장애 유형 중 하나이다(김진숙, 2015). 따라서,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의 존재는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가족 전체의 역동이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김진숙, 2015).

가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바라보는 타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전혜인, 2009).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 뿐 아니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족 전체로 확장해서 인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면 비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활발한 연구는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축적된 연구가 일부 장애에만 국한되어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장애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을 가진 가족 집단 전체에 대한 연구도 일부 존재하지만, 그중 대다수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밝히지 않아서 해당 연구의 결과가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 앞서 발달장애의 특성을 언급했지만, 장애의 종류에 따라 개인이 겪는 고유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부모나 가족 구성원의 지지나 도움, 심리적응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에는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지체 장애 등 다른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추후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장애인 관련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부족에 이어,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이나 주제로 한 연구의 부족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어떤 소수자 집단이든 그 집단 내에는 다양성과 이질성이 존재하기 때문에(배진희, 2003),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장애 관련 요인(장애의 종류, 장애의 정도, 장애 발현 시기) 그리고 개인 내·외적인 요인(성별, 학력, 가족의 지지,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하위집단에 속한 개인의 경험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의 삶의 경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김경미와 김미옥(2006)은 사회복지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를 분석할 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별도로 분류해서 살펴봤는데 이는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폭력의 위험에 더 노출되거나(임채영, 배화옥, 2011), 출산이나 양육 등의 경험 등 남성과 다른 고유한 경험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 남성장애인과는 다른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담심리학 분야에서도 장애인 일반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 못지않게, 장애를 가진 사람 중 더 심리적으로 취약하거나 상담 서비스가 더 필요한 집단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즉,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 단위의 접근과 개인 단위의 접근이 모두 요구된다(Reeve, 2002).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을 모집할 때는 연구 참여자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목적으로 수행된 국외 선행연구 2편에서도 연구대상이 하나의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연구대상자 모집시 인종, 민족, 성별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Foley-Nicpon & Lee, 2012; Woo et al., 2016).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모집시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등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 내에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지나치게 일반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개입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다양한 방법론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집단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대인관계나 부부관계, 자존감 등을 향상시키는 연구들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개입의 적용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개인상담 장면에서의 장애인 내담자의 경험이나 장애인 상담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병행된다면 상담자들이 장애인 내담자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를 가진 내담자에 대해 상담심리학 분야에 종사하는 상담자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한국 상담심리학회와 상담학회의 윤리강령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담자는 ‘장애’를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고,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상담자가 장애를 가진 내담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탐색 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시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권선진, 2004)을 고려하면 상담자 역시 사회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자의 태도는 장애를 가진 내담자와의 상담 전반 그리고 상담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탐색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장애를 가진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장애가 주요 호소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장애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거나, 장애로 인해 그들의 잠재력을 낮게 평가한다면 내담자는 존중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고 신뢰 관계 형성이나 상담의 효과도 얻기 어려울 수 있다(안성희, 2020; 이은진, 2020).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성희, 신현기, 2017)에 따르면, 상담자는 장애를 가진 내담자를 만날 때 내담자의 이야기를 주목하기보다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을 만나는 상담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조언이 ‘치료로 연결하기’였는데(김성희, 신현기, 2017), 물론 지적 장애라는 장애의 종류의 특성에 기반한 조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상담자들이 잠재적 내담자 군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 혹은 특정 장애에 대해 상담자가 가진 인식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영향을 받고 있진 않은지, 영향을 받고 있다면 상담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필수적으로 연구된다(Vash & Crewe, 2004).

장애를 가진 내담자가 상담자 집단이나 상담 접근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다뤄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내담자가 상담 심리학계에서 비가시화 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상담 서비스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의 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의 상담 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희, 신현기, 2017; 이은진, 2020). 그렇다면, 장애인의 상담

접근성이 낮거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상담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연구 방법별로 살펴보면 양적연구가 질적연구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양적연구를 살펴보면, 요인분석, 즉 척도의 개발이나 타당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추후에 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담 심리학 분야 내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척도가 장애인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궁극적으로 상담 실제에 도움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박승민, 2012) 앞으로 상담자가 장애인 내담자에게 근거기반적(evidence-based) 상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이론, 기법,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하는 양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상학적 방법(4편), 사례연구(4편), 근거이론(2편), 합의적 질적 연구(1편) 등 비교적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주체의 특성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질적 연구 주제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장애를 가진 형제를 둔 비장애가족의 경험, 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적응 과정 등으로 시간을 두고 개인이 경험하는 현상이나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질적 연구는 정해진 변인을 기준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와는 달

리 개인의 경험을 생생하고 풍부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장애인 관련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질적 연구를 통해 축적된 장애인 및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추후 양적 연구를 통해 검증할 만한 변인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 관한 상담 및 심리치료 학회지에 실린 선행연구의 내용과 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 및 종합하여 장애인 연구의 현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 번째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었던 38편은 상대적으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거나 분석하기에 충분한 숫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심리학 분야 내에서 장애인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타 분야의 학술지에 실린 출판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애인을 주요 연구대상이나 연구주제로 하는 ‘재활상담’과 같은 학회지에는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학술적인 내용 및 정보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타 분야이지만 학계 간의 연계성이 있다고 고려되는 학술지를 중심으로, 장애인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유용한 주제의 논문들에 대한 개관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장문희 (1980). 언어장애아의 진단과 치료방안을 위한 일모형. *인간이해*, 2(3), 55-64.

강효경 (2012). 장애아동가족의 스트레스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가족탄력성 조절효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11(3), 427-446.

권선진 (2004). 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3), 59-75.

김경미, 김미옥 (2006). 한국장애인복지학 연구 동향에 관한 분석과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58(3), 269-294.

김다혜, 한재희 (2016). 지적장애형제를 둔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적 현상. *상담학 연구*, 17(5), 357-375.

김동일, 고은영, 정소라, 이유리, 이기정, 박중규, 김이내 (2009). 국내 학습장애 연구의 동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0(2), 283-347.

김동일, 신재현, 김원호, 이기정, 손지영 (2012). 장애 대학생용 취업준비도 검사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13(4), 1579-1595.

김동일, 이기정, 김원호, 신재현 (2011). 장애 대학생의 취업준비도 특성: 비장애 대학생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2(3), 915-929.

김미라, 정남운 (2006). 장애아동 어머니가 자녀의 초등학교 통합직전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201-216.

김미례, 오명자, 오익수, 허승준 (2008). 집단상담: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ctive Parenting Today: APT) 이 장애아 어머니의 자기격려와 자기낙담 및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9(4), 1665-1683.

김성희, 신현기 (2017). 지적장애 아동 상담 경험자의 지적장애에 대한 인식 연구. *재활심리연구*, 24(1), 203-219.

- 김양순 (2005).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동물 보조 놀이치료 사례 연구. *상담학연구*, 6(2), 485-497.
- 김영란, 백영숙 (2009). 부모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발달장애아 가정의 어머니 공감능력 증진과 비장애자녀의 행동문제개선 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4(2), 17-34.
- 김영준, 도명애 (2014). 만화캐릭터를 활용한 상황이야기 중재패키지가 지적 및 자폐성 장애학생의 자기관리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9(2), 17-37.
- 김윤희, 김진숙 (2014).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장애수용 과정. *상담학연구*, 15(5), 1911-1935.
- 김진숙 (2015).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 메타종합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63-490.
- 김진영, 남진열 (2005). 장애대학생에 대한 비장애대학생의 인식과 태도 연구. *청소년학연구*, 12(4), 39-58.
- 류수민, 한영주 (2015). 중증장애인의 비장애 형제로 살아감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6(2), 121-155.
- 류승연 (2018).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푸른숲.
- 명화숙, 명한나, 제인마이어스 (2014). Effects of Psychoeducation using the HeartMath™ system on stress and wellness for Korean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9(1), 1-15.
- 박미란 (2009). 장애인 이해 수업을 통한 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고찰. *상담학연구*, 10(4), 2437-2453.
- 박승민 (2012).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경향 분석-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953-977.
- 박윤자, 김정희 (2003). 역동적 집단상담이 지체장애인의 자존감과 지각된 상담효과 요인에 미치는 영향: 비장애인과 비교. *상담학연구*, 4(2), 223-235.
- 박재국, 이미숙 (2001). 장애인 삶의 질(QOL)의 연구동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0(2), 1-25.
- 박춘희, 이지연 (2011). 초기부적응도식과 장애학생 어머니의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1), 153-173.
-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https://data.kihasa.re.kr/micro/subject_view.jsp?grp_seq=719&project_seq=779.
- 배진희 (2003). 청각장애 내담자들 간의 다양성: 정체성을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4(2), 267-279.
- 성경희, 최성열 (2020). 청각장애인의 주요 호소문제와 상담활동에 대한 인식. *청소년상담학회지*, 1(2), 25-37.
- 송현중 (2005).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상담자의 준비-경도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6(3), 933-946.
- 송현중 (2008).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상담교사의 준비와 역할수행 실태 분석. *상담학연구*, 9(2), 755-769.
- 신정혜, 김현주 (2018). 아스퍼거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가시화 실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 연구*, 19(3), 209-231.
- 심은지, 이정숙 (2009). 자폐장애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자기표현을 위한 비지시적 미술치료 단일사례연구. *상담학 연구*, 4(1),

- 25-49.
- 안성희 (2020). 다문화 사회의 작고도 큰 구성원: 장애나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심리학적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33-49.
- 여문환 (2010). 자폐성 아동 학습 프로그램 LPDAC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지능 특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5(1), 73-84.
- 유동철 (201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1), 217-239.
- 유훈, 김계현 (2015).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6(5), 157-170.
- 오욱찬 (2018). 장애인의 차별 인식 실태와 정책과제. *복지보건복지포럼*, 2018(9), 47-58.
- 왕영선, 김정민 (2013). 발달장애아동 가족의 탄력성 강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와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773-794.
- 원요한, 천성문, 윤치연, 이영순 (2004). 부부관계증진 상담 프로그램이 지체장애인 부부의 자아존중감 및 가족기능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5(3), 855-866.
- 이숙자, 오수성 (2006). 상담 일반: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적극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7(1), 27-45.
- 이은진, 유성경 (2011).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변화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1083-1115.
- 이은진 (2020).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와 심리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197-224.
- 이정민, 김수지, 천성문 (2017). 영상매체를 활용한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이 뇌병변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8(3), 333-349.
- 이정숙, 안순영 (2010). 상발달장애아를 위한 표현예술과 놀이중심의 통합적인 심리치료 사례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5(1), 51-71.
- 이주영, 김원호 (2018). 특수아 상담교과 수업을 통한 상담전공 학부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상담학연구*, 19(3), 123-140.
- 임성욱, 이숙자 (2008). 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9(2), 469-483.
- 임채영, 배화옥 (2011). 여성장애인의 폭력피해 위험요인. *재활복지*, 15(1), 19-46.
- 장은희, 정영숙 (2011). 장애아 어머니의 긍정적 의미부여와 심리적 안녕감·돌봄 만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051-1081.
- 전혜인 (2009). 장애자녀의 어머니가 비장애자녀를 키우는 이야기. *정서·행동장애연구*, 25(4), 333-359.
- 정수인, 오인수 (2014). 신체장애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비장애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와 부모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2), 887-901.
- 정명선, 이경준 (2012). 국내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동향 분석과 제언. *한국위기관리논집*,

- 8(5), 143-164.
- 조성은, 홍경자, 이명자 (2004).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한 심리적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 *상담학연구*, 5(4), 1065-1080.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1988-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조현재, 조현춘 (200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의 효과에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323-337.
- 최지영 (2009).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10(4), 2571-2589.
- Altman, B. M. (2001). Disability definitions, models, classification schemes, and applications. In G. L. Albrecht., K. D. Seelman., & M. Bury (Eds.), *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 (pp. 97-123). Sage Publications.
- Artman, L. K., & Daniels, J. A. (2010). Disability and psychotherapy practice: Cultural competence and practical tip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1(5), 442-448.
-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CDC: 1 in 4 US adults live with a disability. Retrieved from: <https://cdc.gov/ncbddd/disabilityandhealth/infographic-disability-impacts-all.html>
- Dunn, D. S., & Andrews, E. E. (2015). Person-first and identity-first language: Developing psychologists' cultural competence using disability language. *American Psychologist*, 70(3), 255-264.
- Foley-Nicpon, M., & Lee, S. (2012). Disability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s: A 20-year content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59(3), 392-398.
- Government of Canada (2013). Federal Disability Reference Guide. Retrieved from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disability/arc/referenece-guide.html>.
- Middleton, R. A., Rollins, C. W., & Harley, D. A. (1999).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 of the civi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multicultural perspective for counselor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7(2), 105-120.
- Olkin, R. (2007). Disability-affirmative therapy and case formulation: A template for understanding disability in a clinical context. *Counseling and Human Development*, 39(8), 1-20.
- Reeve, D. (2000). Oppression within the counseling room. *Disability & Society*, 15(4), 669-682.
- Rivas, M., & Hill, N. R. (2017). Counselor trainee's experiences counseling disability: A phenomenological stud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57(2), 116-131.
- Robertson, S. E. & Brown, R. I. (eds) (1992). *Rehabilitation Counseling Approaches in the Field of Disability*. London: Chapman & Hall.
- Smart, J. F., & Smart, D. W. (2006). Models of disability: Implications for the counseling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1), 29-40.
- Snow, K. (2007). People first language. Retrieved from

<https://bobbydodd.org/wp-content/uploads/2019/11/People-First-Language-Documents-Combined.pdf>

원 고 접 수 일 : 2020. 03. 17

수정원고접수일 : 2020. 07. 03

게 재 결 정 일 : 2020. 11. 26

Vash, C. L., & Crewe, N. M. (2004). *Psychology of Disability*. New York: Springer.

Woo, H., Goo, M., & Lee, M. (2016). A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on disability: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journals between 2003 and 2013.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4(4), 228-244.

A Trend Analysis of Research on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s

Jeongeun Park

Chosun University / Professor

This analysis examined how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en discussed and understood in th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ield. Research o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lated topics were reviewed. The analysis included 38 articles published in six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s, focusing on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research topics, participants, and methodologies. The analysis found that in five out of the six journals, less than 1% of articles published were related to disabilities. Of note, the frequency of articles about the experiences of family member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relatively high when compared to other topics. Despite the limited quantity of studies on people with disabilities, various methodologies were used across these stud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highlights the need for additional research on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ield, including research on various sub-group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Key words : People with disabilities, A trend Analysis, Counseling People with disabilities